

# 소득주도 성장 숨고르기... '고용 쇼크' 숨통 트기

## 최저임금 계획보다 낮은 인상폭 왜?

취업자 5개월째 10만명 '금융위기 이후 최악' 소상공인 반발 여전... 일자리 증가는 어려울 듯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당초 목표에 못 미친 10.9%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소득분배 개선에 과제로 안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더 커지게 됐다.

이런 최저임금 숨 고르기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한 최근 고용 상황에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계획보다 낮은 인상 폭에도 소상공인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당장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 서민 자영업 겹박자에 결국 최저임금 인상 '목표 미달' =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0.9% 오른 것으로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한 데에는 최근 '쇼크'로 여겨질 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고용 상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6000명에 그치는 등 최근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다.

◇ 소득주도성장 '동력' 차질 빛나... 고용 개선 여부도 관심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된 동력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당초 계획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함께 속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입장

2019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올해 대비 ↑10.9%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209만원 올해 평균 영업이익 → 내년 200만원 밑돌 것으로 추정

작년 195만원 월평균 수익 70만원가량 감소 → 올해 130만2천원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 → 단순 계산 월평균 수익 100만원을 밑돌 수 있음

◇ 소상공인연합회와 연합회에 속한 편의점주들의 발표 및 추정 내용 기준

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속도조절론은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2003년 이래 최대 폭으로 줄어들어 소득분배가 악화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저소득가구 소득을 끌어내린 주된

요인이 됐던 임시·일용직 고용 약화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인지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1분기 근로소득을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예에 의지해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회의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추되 EITC(근로장려금), 노인연금 등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심화한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쏟아내며 혁신성장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부쩍 눈에 띄는 것도 이런 기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최저임금 인상 숨 고르기로 최근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 상황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지도 관심 사안이다.

경쟁계가 당초 우려했던 수준보다 인상 폭이 작았던 만큼 지금보다는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서민 자영업에는 부담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중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해 올기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 여 "영세 상공인·자영업자 보호대책 마련" 야 "문대통령 임기내 1만원 공약 폐기를"

### 최저임금 인상 여야 반응

여야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찍은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내지 조정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권 강화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가인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여당은 공약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민께서도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주시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한 것"이라며 "지

급이라도 정부는 일자리 상황과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했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합진규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도 높아진다"며 "정권 내 목표치를 정해 강제로 인상 폭을 맞추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정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해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만큼"이라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으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갑질, 부동산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약 달성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미 판문점 회담이 열린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미군 차량이 유엔깃발을 달고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 북미 9년만에 장성급 회담... 미군 유해 송환 논의

북한과 미국은 15일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을 했다. 정부 및 주한미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라

면양측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판문점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관련 회담을 진행했다. 유해송환의 시기 및 송환방식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은 지난 2009년 3월 개최 이후 9년 4개월 만에 열렸다. /연합뉴스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에 배우 김규리



영화배우 김규리(사진)가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영화배우 김규리 씨에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규리는 지난 2008년 영화 '미인도'에서 신윤복 역을 맡으면서 수목화를 배웠고, 이후 취미활동으로 즐기고 있으며, 수목비엔날레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목화 붓 선물을 받았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본인이 직접 그린 수목화의 수목화 작품을 게재하는 등 수목과 관련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시 생활임금 9천원 돌파할 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광주시가 적용하고 있는 생활임금 역시 9000원선을 돌파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영해 오는 9월초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해 9월 10일 고시할 예정

이다.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8840원(월 184만7560원)으로, 최저임금(7530원)보다 1310원이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에 접어들면서 생활임금도 9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부터 공공부문(일자리사업, 보조금 사업 분야)에 생활임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칠 전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임야·삽니다

당일매입가능, 김태산. 010-9374-8585

## 訃 告

고 南谷 권진욱(전 광주지방변호사 협회장)님께서 향년 82세, 2018년 7월 15일 오전 04:00시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다음과 같이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 소 각화동 그린장례식장 본관3층 특10호실  
발 인 2018년 7월 17일(화) 오전 9시  
장 지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영락공원

2018년 7월 16일

미 망 인 노 하 송 (魯夏宋)  
상주 장남 권 재 환 (權載桓)  
차남 권 재 승 (權載勝)  
자부 강 민 지 (姜旻池)  
손자 권 준 헌 (權俊憲)  
손녀 권 혜 원 (權慧源)  
손녀 권 혜 진 (權慧眞)  
손녀 권 서 영 (權書瑩)

연락처 062-250-4410, 010-3606-8686  
호상 이 강 열 (李康烈)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사주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주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주역학 학당 개설 -

- 일시: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6시
- 장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사주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주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

## 프린터 벤처기업 (주)소리안 보청기

당사는 보청기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술보증기금 선정 프린터 벤처기업입니다. 사세 확장에 따른 광주-전남지사에서 근무할 열정을 가진 새로운 인재를 모집 합니다.

모집분야	직영지사 지사장(0명) 및 영업관리 담당자(0명)
근무지역	광주 및 전라남도 지역
담당업무	청각장애등급 절차 및 보조금 관련 안내 업무의 지사 조직관리
채용조건	영업관리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직영지사 지사장(정규직)으로 채용
우대사항	영업조직 관리 경험자 우대
지원서 접수	2018년 7월 16일(월)~ 7월 30일(월)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주)소리안 관리부 채용담당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jspark@sorian.co.kr 053-252-8585

SORIAN (주)소리안 관리부